

광주~서울 버스승객 37% KTX로 광천동 유·스퀘어 신흥상권 '반토막'

호남선KTX 개통 '교통 빅뱅'

급고속 등 대책 마련 부심

광주역세권은 사실상 붕괴

3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광주·전남 지역의 교통지형과 역세권, 상권 등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항공에 이어 고속버스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 관련 업계에서는 서비스 차별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고속버스 타격 심각=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남고속철(KTX) 개통시 서울-광주 구간의 고속버스→KTX 전환율은 37.6%로 나타났다. 이는 고속버스 이용객 100명 가운데 37.6명이 버스 대신 KTX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으로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주요 구간별로 보면 서울-익산 구간이 35%, 서울~정읍 구간은 32.5%의 전환율을 보였다. 서울~목포는 49.5%로 가장 높은 전환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4개 구간에서 KTX로 유입되는 인원은 1일 평균 인원은 9366명이며 연간 341만8561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속버스를 타면 서울~광주 구간이 3시간 30분이 걸리지만, KTX를 타면 2시간 가깝게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상당수 승객이 KTX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KTX로 승객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 등 지역 고속버스 업계도 대

호남고속철 개통(서울⇔광주) 과 교통수요 변화



책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급고속은 누워서 갈 수 있는 '집대형 버스'를 도입해 서비스를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KTX가 가지 않는 지역을 위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우수 기사 등에게 '프리미엄' 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급고속 관계자는 "KTX가 대동맥이 되면 버스는 모세혈관으로 결코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없다. KTX와 겹치는 노선을 일부 정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세권·상권 변화=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집중된 역세권이 다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KTX개통으로 송정역세권이 형성되면서 터미널내 유·스퀘어로 집중됐던 신흥 상권이 양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스퀘어의 하루 유통인구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터미널 주변 교통 정체 등도 다소 해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송정역에 2000억원대의 민간 투자를 받아 신역세권을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3년 7월 서희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오는 2017년까지 지하 3층, 지상 11층 (총면적 12만2000㎡)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위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우수 기사 등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애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반면 광주역세권은 사실상 붕괴할 것으로 우려된다. 가뜰이나 상권 침체가 심각한 광주는 KTX 진입의 송정역 집중으로 이용객이 급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구청과 동·북구 주민들은 KTX 이용불편과 도심 공동화 등을 우려하며 KTX 일부 편수의 광주역 진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선KTX개통으로 광주가 전국 만나질 생활권 시대를 맞이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KTX개통이 지역 발전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 충북·청주시도 반대

"고속 본연기능 훼손·국가균형발전 역행" 논의 중단 촉구

KTX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 논란에 대해 충북도와 청주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동일 권역내에서도 타당성 문제가 제기됐다.

같은 권역인 대전시와의 관계나 충청권 공조 등을 고려해 충북도 등은 상당 기간 침묵으로 일관했으나 서대전역을 경유하게 되면 오송 분기역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 여론이 확산되며 따른 것이다.

조병우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22일 도청 기자회견을 열어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는 KTX 본연의 고속 기능을 훼손할 수 있고, 오송역을 정차하지 않은 채 통과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오송역이 분기역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호남선과 경부선을 운영하는 KTX의 정차 횟수를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도는 이런 입장을 이날 중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보냈다.

청주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에 대해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호남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는 국가철도망 X축 실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정책 목표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상설 연대기구인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 "서대전 경유 논의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이날

간급 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응방법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충북에서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광주시행정동우회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부고속철도보다 10여년 이상 늦게 시작된 호남고속철도가 그나마 일부 부분개통되는 것을 함께 축하해 주려는 의도는 호남인을 또 울리는 처사"라며 서대전역 경유를 반대했다.

이와함께 김생기 정읍시장은 "호남권의 오랜 숙원사업인 KTX 3월 개통을 앞두고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에 제출한 KTX 일부 편수가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밝혀져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정음=박기섭기자 parkks@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2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효성 탄소섬유공장을 방문, 탄소 관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섬유 첨단기술에 감탄...자부심"

새누리 김무성 대표 효성 전주공장 방문 탄소산업 간담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북 방문 이틀째인 22일 오후 전주에 있는 효성 탄소섬유 생산현장에 와서 보고 감탄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김 대표는 아 자리에서 "말로만 듣던 탄소섬유 생산현장에 와서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며 "이런 첨단기술을 전적으로 국가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강철보다 밀도는 3분의 1밖에 안 되면서도 10배 이상 강도를 갖고 있는 탄소섬유를 우리 자체에서 개발해 효성에서 상품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잘 된 일이라 생각한다"며 "제가 보기에 탄소섬유 수요는 앞으로 급증하면서 무궁무진으

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화와 국내 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등 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전주상공회의소 김택수 회장이 "박근혜정부에서 전북 출신 장관이 없는 데 이번엔 장관이 나오게 해 달라"고 건의한 데 대해서는 "전북 출신 장관이 없는 것에 많이 마음이 상해 계시는데 대통령께 잘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군산의 새만금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익산 신웅동 원불교중앙총부를 찾아 장영철 원불교 총법사를 예방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주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 회의를 열고 탄소산업 육성법 제정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대표는 "전북은 15대 총선 이후 4차례 전패를 기록해 당의 불모지가 됐다"며 "전북도민 열의를 정부와 국회에 잘 전달해 성취하는 희망통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 큰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전북의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게 100% 대한민국의 시작이자 근본이라 생각해 정부도 당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정몽구회장 잇단 광주 방문...창조센터 '통큰 투자' 기대

27일 광주센터 개소 준비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한달 만에 광주를 두 차례나 방문하면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 회장은 22일 광주창조센터 준비상황 현지점검 차 광주를 방문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광주에 도착, 그룹 관계자 등 일행 20여 명과 함께 광주 북구 오송동 광주과학기술원(GIST) 내 기술융합과 지원센터(GTI)를 찾아 준비상황 전반을 꼼꼼히 살펴봤다.

정 회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창조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창조센터는 오는 27일 서구 양동 KDB생명빌딩 16층에서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유망 아이디어 발굴지원팀과 창업지원팀 등 2개 팀은 이미 신설됐다. 광주과기원에는 창조센터 업무 중 핵심인 수소차 연구·지원 센터가 별도로 들어선다. 현대차 그룹은 이곳을 중심으로 수소차 연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지난 200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이후 6년9개월만 지난날 19일 내광한 데 이어 광주를

또 방문했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비공개로 추진됐으며, 정 회장이 한달 새 특정 지역을 두 차례나 방문하는 일은 그룹 내에서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시는 잇단 정 회장의 방문에 내심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삼성그룹이 대구에 창조센터를 개소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만큼 현대차 그룹도 호남의 대표 도시인 광주에 통큰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올 상반기 내에 각각 1개씩, 모두 17개의 창조센터를 모두 완공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온천

고창웰파크시티로 가족 여행 떠나자!

게르마늄 온천수로 만든 인공눈썹매장에서 신나는 눈썹매를!
황토벽돌, 편백나무와 한지로 마감한 건강황토펀션에서 아늑한 휴식을!
신비의 게르마늄 온천과 물놀이 시설에서 삼대(三代)가 잊지 못할 추억을!

분양 [063]563-9300 힐링카운티(펜션) [063]560-7300 석정휴스파(게르마늄 온천) [063]560-7500
고창웰파크시티 내 운영 시설_ 힐링 카운티(건강황토펀션), 석정 휴(休)스파(게르마늄 온천), 석정 눈썹매장, 피트니스센터, 연회장, 석정힐스(골프클럽)

고창웰파크시티와 함께 할 인재를 모십니다

- ▶모집부문
 - 분양 경력직 : 실버타운 / 아파트 / 상가
 - 영업 경력직 : 리조트 / 레저
 - 객실 지배인 : 콘도 / 펜션
 - 하우스 키핑 : 콘도 / 펜션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년 1월 31일 (채용시 마감)
 -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접수처
 - 우편: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2로 173 고창웰파크시티 통합사무실
 - E-mail: huspa@naver.com
- ▶문의처 : 063)560-7581 경영지원실 인사팀

(주)서울시니어스 엠앤에스